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그린 전주'

시, 생태도시 분야 6대 역점시책 제시... 아파트 불법행위 대응·주거약자 위한 복지 정책 등 추진

전주시가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아파트 불법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주거약자들을 위한 사회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코 시티에는 백석저수지와 연계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효천지구에는 교통정체를 해소할 효천교를 구축하는 등 신도시 개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18일 생태도시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 삶의 중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그린 전주'를 비전으로 생태도시 분야 6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6대 역점시책은 ▲함께 행복한 미래 도시 구현 ▲더불어 행복한 전주형 주거복지 실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품격 있는 도시 구현 ▲걷고 싶은 도로, 걸으면 행복한 도로 만들기 ▲빛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나는 기억, 다시 뛰는 심장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추진 ▲품격 있는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생태문화도시 구현 등이다.

시는 모두가 행복한 미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찰서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인접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행복하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월세체납·경매·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위기에 몰린 주거약자에게는 임시거처인 긴급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무주택 청년·고령자·다자녀·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사회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후·반촌 지역과 팔복동 지역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지로 선정된 곳에는 행복주택과 청년예술인주택, 고령자안심주택 등을 구축하고 작은도서관과 썬더공원, 문화카페 등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시는 또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품격 있는 도시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이전이 불가피한 전주교도소의 경우 올 연말까지 이주민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주 대대 이전사업은 인접 지자체와 지역주민, 비대외외의 소통을 바탕으로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효천지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할 효천교는 9월까지 완공하고, 예코시티에는 백석저수지와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걷고 싶은 도로, 걸으면 행복한 도로를 만드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총경로 사거리부터 병무청 오거리까지 구간과 한옥마을에서 전주시청을 잇는 구간에서는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

해 독배천, 금학천, 아중천 등에서 하천 정비사업도 벌인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경우 정원, 예술, 놀이, 미식, MICE의 5가지 테마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행정절차 이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전주의 스포츠산업을 선도할 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및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서부시장 간판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2021년은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지는 시민 중심의 그린도시 전주의 모습을 다지는 해"라며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국내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정읍시와 연계한 여행상품인 '2021 mymy travel 전주·완주·정읍'을 오는 22일 출시한다.

mymy travel 전주·완주·정읍

전주시, 한옥마을·소양고택·내장산 등 둘러보는 1박2일 여행상품 22일 출시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완주 소양고택을 둘러 정읍 내장산과 쌍화차거리까지 둘러보는 1박2일 여행상품이 출시된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국내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정읍시와 연계한 여행상품인 '2021 mymy travel 전주·완주·정읍'을 오는 22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021 mymy travel 전주·정읍·완주'의 여행일정은 전주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가운데 정읍과 완주를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주에서는 전통성당과 전라감영, 객리단길, 동고사 야경투어 등이 포함돼 한옥마을에서부터 전주 관광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했다.

완주에서는 오성한옥마을에 위치한 소양고택을 방문해 전통 한옥에 대해 둘러보도록 했다.

BTS가 다녀가 유명해진 오성계 저수지에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정읍에서는 내장산국립공원과 무성서원을 방문하고, 전통쌍화차를 즐길 수 있는 쌍화차거리를 들르는 시간이 포함됐다.

또 정읍에서 손꼽히는 백반집인 정촌식당에서 가정식 백반도 맛볼 수 있는 시간표도 짜여졌다.

시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2일 동안 카자흐스탄과 몽골 출신 평가자를 초청해 숙박, 식사, 문화, 관광지 등 여행일정 전반에 관한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광개발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mymy travel 여행상품이 전주가 한국여행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인소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는 5월에는 전주와 무주, 진안 등 도내 타 시군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여행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여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이벤트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2일 동안 카자흐스탄과 몽골 출신 평가자를 초청해 숙박, 식사, 문화, 관광지 등 여행일정 전반에 관한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광개발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mymy travel 여행상품이 전주가 한국여행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인소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는 5월에는 전주와 무주, 진안 등 도내 타 시군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답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여행 예약 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티몬(TIMON)과 클룩(KLOOK)을 통해 여행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할인 이벤트를 지원해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2021 mymy travel 전주·완주·정읍' 여행상품은 관광객접도시로 선정된 전주시가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맺고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향후 시는 해외 관광객 사전 유치를 위해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등 해외 여행사와 제휴되어 있는 국내 랜드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여행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여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이벤트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2일 동안 카자흐스탄과 몽골 출신 평가자를 초청해 숙박, 식사, 문화, 관광지 등 여행일정 전반에 관한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광개발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mymy travel 여행상품이 전주가 한국여행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인소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는 5월에는 전주와 무주, 진안 등 도내 타 시군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속버스 왕복탑승 중 1회에 한해 프리미엄 우등 고속버스를

답습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2일 동안 카자흐스탄과 몽골 출신 평가자를 초청해 숙박, 식사, 문화, 관광지 등 여행일정 전반에 관한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광개발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mymy travel 여행상품이 전주가 한국여행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인소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는 5월에는 전주와 무주, 진안 등 도내 타 시군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여행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여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이벤트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2일 동안 카자흐스탄과 몽골 출신 평가자를 초청해 숙박, 식사, 문화, 관광지 등 여행일정 전반에 관한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광개발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mymy travel 여행상품이 전주가 한국여행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인소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는 5월에는 전주와 무주, 진안 등 도내 타 시군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속버스 왕복탑승 중 1회에 한해 프리미엄 우등 고속버스를

답습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2일 동안 카자흐스탄과 몽골 출신 평가자를 초청해 숙박, 식사, 문화, 관광지 등 여행일정 전반에 관한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광개발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mymy travel 여행상품이 전주가 한국여행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인소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는 5월에는 전주와 무주, 진안 등 도내 타 시군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여행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여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이벤트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2일 동안 카자흐스탄과 몽골 출신 평가자를 초청해 숙박, 식사, 문화, 관광지 등 여행일정 전반에 관한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광개발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mymy travel 여행상품이 전주가 한국여행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인소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는 5월에는 전주와 무주, 진안 등 도내 타 시군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 22~26일까지 145명

전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145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 18~65세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만 18~39세)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배제된다.

근무 시간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일반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이다. 임금은 시급 872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4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열린교육 바우처 업무지원 등 DB 구축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환경정비사업 등 총 52개 사업에 배치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비

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예년에 비해 모집인원을 확대한 만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대비 1차 스마트교실 운영

전주시가 4월 10일 치러지는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술문제 풀이 및 개인별 멘토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오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대비를



'유치장 빠져나온 영아 살해 부부' 익산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한 1차 스마트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교실은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해 검정고시 과목을 지도해주는 집단강의로,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1차 스마트교실에서는 지난 6개월 간 기술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등 교육봉사자 8명으로 구성된 개인멘토단을 통해 1:1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학습능력 향상을 돕기로 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자 목표하는 점수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